



멈추지 않는 심장... 시민구단 한계 딛고 '새역사'



2025시즌 결산-상

프로축구 광주FC의 다사다난했던 2025시즌이 끝났다. 올 시즌 광주는 시작 전부터 주춧돌들이 대거 이탈하며 불안한 출발을 알렸다. 이어 시즌 중에도 핵심 공격수가 돌연 이적했고, 역대 기여금 미납 문제로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벌금과 이적시장 선수등록 금지 징계를 받는 경악재를 맞았다. 그럼에도 확실한 성과를 거뒀다. 리그 성적은 15승 9무 14패 승점 54 리그 7위. 이로써 K리그1 3년 연속 잔류에 성공했다. 창단 이후 처음 참가한 ACLE 무대에서는 역대 시·도민 구단 최초로 8강 진출의 새 역사를 작성했다. 여기에 구단 사상 첫 코리아컵 결승 진출과 준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위기 속에도 빛을 발했던 광주의 올 시즌을 돌아본다.

15승 리그 7위 마감...K리그1 3년 연속 잔류 ACLE 무대서 시·도민 구단 역대 최초 8강 창단 첫 코리아컵 결승 진출...준우승 성과

프로축구 광주FC는 올 시즌 시작 전 K리그1 중위권 사수라는 목표를 밝혔다. 지난 시즌 K리그1 9위의 이름을 이겨내고 한 단계 더 도약하겠다는 의지였다.

실제 시즌 초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좋았다. 홈 개막전에서는 수원을 상대로 0-0 무승부를 거뒀고, 이어 '거함' 전북을 상대로도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3라운드에서는 FC안양을 2-1로 꺾고 리그 4위에 안착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ACLE 코리아컵 병행으로 체력에 한계를 느낀 광주는 중·하위권을 전전했

다. 결국 올 시즌 정규 라운드에서 11승 9무 13패 승점 42점을 기록했다. 순위는 같은 승점을 기록한 FC안양에 다득점으로 밀려 8위로 내려앉았다. 파이널A(상위스플릿)가 아닌 파이널B(하위스플릿)에서 강등권 경쟁을 치르게 된 것이다.

다만 하위스플릿에서는 4승 1패로 승점 12점을 추가하는 맹활약을 펼쳤다. 그 결과 최종 성적은 15승 9무 14패(승점 54) 리그 7위. 지난 시즌의 승수와 승점(14승·47점)을 넘어서며 이정호 감독과 선수단이 설정한 '최소 15승 목표'를 달성했다. 이로써 3년 연속 K리그1 잔류라는 성과 또한

기록했다.

광주의 활약은 아시아 무대에서도 이어졌다.

먼저 올해 2월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16강 진출을 확정 지었다. 광주는 중국 지난 올림픽 스포츠 센터에서 열린 2024-2025 ACLE 리그 스테이지 7차전에서 산둥 타이산에 1-3으로 패배했다. 이날 패배로 광주는 4승 1무 2패를 기록, 승점 13점을 유지했지만 동아시아그룹 4위에 자리 잡으면서 남은 8차전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16강전에 올랐다.

ACLE 16강전에서는 J리그 최강팀 비셀 고베를 상대로 맹활약을 펼쳤다. 이에 1·2차전 합계 점수에서 앞서며 8강 진출에 성공했다. 8강전에서는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지만,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었다. 역대 시·도민 구단 중 ACL 무대에서 8강에 오른 건 광주가 최초다. 더욱이 2024-2025 ACLE에 진출했던 울산HD와 포항스틸러스가 리그 스테이지에서 탈락한 가운데 광주가 유일하게 8강까지 진

출하며 K리그의 자존심을 지켰다. 광주가 국내리그뿐 아니라 아시아 무대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는 강팀으로 성장한 결과다.

또 광주는 코리아컵 준우승의 금자탑을 쌓았다.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준결승에서 부천을 1·2차전 합계 4-1로 앞서 결승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광주가 코리아컵 결승에 오른 것은 창단 후 처음이다.

결승전에서는 리그 압도적 선두로 조기 우승을 달성한 전북을 상대로 대등한 승부를 펼쳤다. 비록 아쉬운 패배와 함께 ACL2 무대의 꿈도 날아갔지만, 이정호 감독의 리더십 아래 선수단은 끈끈한 조직력과 투혼으로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광주는 올 시즌 다양한 무대에서 활약하며 명백히 강팀의 반열에 올라섰음을 증명했다. 시민구단의 한계를 딛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기적의 대명사로 불릴만한 시간을 보낸 광주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이정호 감독에 최고 예우·시스템 혁신 약속

광주FC, 재계약 관련 강한 의지 표명...“모든 행정력 집중할 것”

프로축구 광주FC는 지난 4년간 구단의 황금기를 이끈 이정호 감독과의 동행 의지를 재확인하며, 구단의 미래 비전을 담은 혁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불거진 감독 거취와 관련된 우려에 대해 구단은 지난 4년간 이정호 감독이 보여준 압도적인 성과와 브랜드 가치를 인정하며 “시민구단의 재정적 한계 속에서도 최고의 예우를 다할 것”이라며 재계약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구단은 단순한 연봉협상을 넘어 이정호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 철학이 구단 전체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우선 구단은 광주FC가 국내를 넘어 아시아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자본력 있는 국내외 후원사 유치에도 전력을 다한다.

이 밖에도 구단은 ‘지역 축구 뿌리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지역 축구 생태계와의 상생을 도모한다. 광주FC의 성장이 지역 축구의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지역 축구협회 및 대학과의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정호 감독은 2022년 구단 제7대 감독으로 부임한 이래 구단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갔다. 감독 부임 첫해 K리그2 역대 최다 승점(86점)으로 다이렉트 승격을 이뤄냈으며, 창단 첫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

및 K리그 시도민구단 최초 8강, 구단 최초 코리아컵 준우승 등 구단의 역대 최고 성적을 이끌었다.

광주FC 관계자는 “구단은 지난 4년의 성과가 끊어지지 않고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정호 감독과 함께 만들어갈 광주의 새로운 봄을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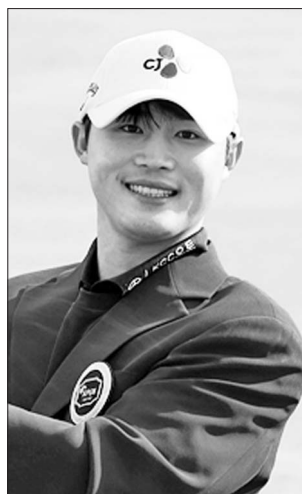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옥태훈



노승열



배용준

옥태훈·노승열·배용준, PGA 투어 Q스쿨 출격

내일부터 미국 폰테베드라비치서...상위 40명은 2부 투어 출전

옥태훈과 노승열, 배용준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켈리파잉(Q) 스쿨에 출전한다.

올해 PGA 투어 Q스쿨은 11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플로리다주 폰테베드라비치에서 열린다.

176명이 출전하는 이 대회는 TPC 소그래스 다이스 밸리코스(파70·6850야드)와 소그래스CC(파70·7054야드)에서 2라운드씩 총 4라운드 경기로 진행된다.

상위 5명이 2026시즌 PGA 투어 출전 자격을 얻고, 이후 상위 40명(공동 순위 포함)에게는 2부 투어인 콘페리티어 출전 자격을 준다.

이 40명 가운데 상위 25명은 콘페리티어 시즌 초반 14개 대회 출전이 보장되고, 이후 15명은 시즌 초반 10개 대회에 나갈 수 있다.

나머지 순위 선수들은 콘페리티어 조건부 출전 자격을 갖게 된다.

지난해에는 공동 순위자에게 다음 시즌 PGA 투어 시드를 모두 부여했으나 올해는 연장전을 치러 5명에게만 PGA 투어 출전권을 준다.

한국 선수로는 옥태훈, 노승열, 배용준이 출전

한다.

옥태훈은 올해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에서 3승을 거두며 제네시스 대상, 상금, 평균 타수, 다승 등 주요 부문을 석권했다.

5일 미국으로 떠난 옥태훈은 KPGA를 통해 “시차 적응과 코스 확인을 위해 일찍 출국했다”며 “2번 정도 코스를 돌며 연습은 물론 코스 매니지먼트를 섬세하게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심리적 부담을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트레이너, 퍼트 코치, 점문 캐디와 팀을 이뤄서 미국에 온 만큼 최상의 팀워크를 통해 최고의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노승열은 2014년 PGA 투어 취리히 클래식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다. DP 월드투어에서도 1승이 있는 노승열은 지난해에도 PGA 투어 Q스쿨에 출전해 공동 8위에 올랐다.

올해 5월 KPGA 클래식에서 우승한 배용준은 올해 KPGA 투어 제네시스 포인트 5위 자격으로 PGA 투어 Q스쿨 2차전에 진출했고, 2차전을 통과하며 Q스쿨 최종전에 올라왔다.

연합뉴스

전남도청 김민수·장민규, 나고야 AG행 ‘성큼’

산타 -60kg 1위·태극권전능 2위...내년 3월 2차 선발전 출전

전남도청 우슈팀 김민수, 장민규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아경기대회” 태극마크를 향한 청신호를 켰다.

9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김민수와 장민규 선수는 지난 8일 해남 우슬동백체육관에서 끝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아경기대회 우수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각각 산타 -60kg급 1위와 태극권전능 2위를 기록했다.

먼저 김민수는 산타 -60kg급 준결승에서 강지현(부산 태극무술관)을 2-0으로 꺾으며 결승에 진출, 결승에서 강희준(충북 비룡관)를 2-0으로 제압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항저우아시아게임 동메달리스트인 김민수는 이로써 아이치·나고야 AG행에 한 발짝 더 다가

섰다.

같은팀 장민규도 투로 태극권전능에 출전해 안정적인 연기를 펼치며 2위에 올랐다.

장민규는 태극권 9.65, 태극검 9.71이라는 높은 점수를 기록했지만, 최종 합산 점수에서 안현기(충북개발공사)에게 근소하게 뒤지며 2위로 대회를 마쳤다.

이들은 내년 3월에 열리는 국가대표 2차 선발전을 대비해 체계적 준비에 돌입, 최종 출전권을 따내겠다는 각오다.

윤병용 전남우슈협회장은 “선수들이 보여준 성과는 훈련장에서 쌓아온 땀과 집중력의 결과”라며 “선수들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훈련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민수



장민규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두 선수의 우수한 성과는 전남체육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값진 결과다”며 “내년 2차 선발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어 아시아경기대회 무대에서 전남과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